에브릴 청사의 연회장은 깔끔하게 잘 가꿔진 정원으로 이어져 있었다. 평소에는 건물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연회나 모임 때에는 방문객들이 종종 찾는 곳이었다. 사적인 행사라면 모를까, 공적인 목적의 무도회가 한창인 탓에 정원에는 사람을 거진 찾아볼 수 없었다. 밀라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그중에서도 가장 인적이 없는 정원 구석을 찾아 몸을 숨겼다. 그녀는 마리네스와 이야기를 나누러 간 실리카를 문득 떠올렸으나 그가 있는 연회장의 중간까지 다시 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밀라는 본디 겁쟁이였다. 같은 벨칸스였으나 대담하게 악녀로서 위상을 떨친 그녀의 언니와는 뿌리부터 다른 부류의 인간이었다. 어쩔 수 없으니 담담하고 무심하니 침착한 척을 한 것뿐. 생각치도 못한 궁지에 몰리면 본래의 그릇 작고 겁먹은 쥐 같은 면모가 튀어나오곤 했다. 마치 지금처럼 말이다

밀라는 울창한 장미 덩굴 사이에 재빨리 제 몸을 숨겼다. 남에게 발견되지 않을 법하니 구불구불하고 어두운 정원의 구석이었다. 인적 없는 공간에서 오는 안정감에 그녀는 평소의 침착함을 일부 되찾으며, 손수건으로 다시 한 번 엉망이 된 외출복과 모자를 닦아내었다. 오른손의 손등이 따가웠다. 정신을 두고 황급히 자리에서 도망치다가 어디 긁히기라도 것인지 손등에는 제법 큰 상처가 피를 내고 있었다. 상처가 생겼다는 것을 인지한 그 순간부터 손등이 무척이나 아려오기 시작했다. 상처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동일하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무표정이었으나,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밀라를 자세히 살펴보았다면 평소와는 달리 눈가가 촉촉함음을 알아차릴 수 있을 터였다.

‘지친다…’

그녀는 하나뿐인 손수건을 접어 상처가 난 손등 위를 눌렀다. 하지만 도수 있는 음료로 이미 찐득축축해진 손수건은 상처 부위를 따갑게만 할 뿐이었다. 소독약을 도포한 것만 같은 감각에 밀라는 인상을 찌푸렸다. 푹 한숨을 쉬며 손수건을 장미 덩굴 위에 막 걸어두었을 때였다.

“이거 쓰세요.”

어느 소년의 앳된 목소리와 함께 깨끗한 흰색의 손수건이 밀라의 눈 앞으로 내밀어졌다.

“괜찮ㅡ"

“괜찮다의 뜻이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 …”

갑작스러운 인기척에 뭐라고 제대로 거절할 새도 없이 밀라는 깨끗한 손수건을 받아들었다. 손수건을 건넨 소년은 어디 숨어있다 나온 건지 어느새 그녀의 옆에 쪼그려 앉아 조잘조잘 입을 놀리기 시작했다. 묘하게 경박하고 까칠한 언어를 구사하는 아이였다.

“조금 긁혔다고 막 놔두면 나중에 흉터가 생겨요. 재수가 없어서 곪으면 아프기도 하고.”

“…고마워요.”

“그쪽도 연회가 재미없어서 몰래 나왔나요. 다른 어른들은 대체로 모여서 마법 이야기나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말이에요.”

“아니요. 음료를 쏟아서 잠시 정신 차리러 나왔답니다.”

영혼 없는 밀라의 대답에 앳된 소년은 대꾸하지 않고 잠시 고개를 들어 눈 앞의 상대를 빠르게 훑어보았다. 한 눈에 보아도 그저 음료를 쏟았다, 정도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는 달리 반박하거나 말을 덧붙이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밀라는 깨끗한 손수건으로 얼굴의 끈적임을 닦은 후에야 비로소 제 눈 앞의 소년을 찬찬히 파악할 수 있었다. 10대 초중반 정도의 말끔하게 차려 입은 짙은 밤하늘색 머리의 화사하고 신비로운 소년이었다. 긴 소매와 목까지 잠근 셔츠 아래로 드문드문 보이는 멍자국과 얼굴에 붙여 둔 흰 거즈가 눈에 띄지 않았다면 어디 사랑받고 자란 도련님처럼 보일 정도로. 익숙한 자의 눈에 보이는 은은한 학대의 흔적에 밀라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이 아이도 그녀 자신처럼 사람을 피해서 정원으로 도망쳐온 걸까? 그렇게 생각하자 알 수 없는 친근감이 느껴졌다.

“저는 카르딜이라고 해요. 그쪽은 이름이 뭐예요? 에브릴 무도회도, 수도도 처음이라. 마법사하고 높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까막눈이거든요. 다들 아는 사이 같은데 저만 혼자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밀ㅡ…”

현재의 본명을 말하려다 말고 밀라는 입을 다물었다. 무도회장에서 있던 일들 탓일까. 이름을 전부 밝히는 일은 괜히 내키지 않았다.

“밀이라고 해요.”

“밀… 밀님? 밀 아주머니, 밀 씨…”

“밀이라고 부르세요.”

“어… 그래도 되나요?”

“같은 마법사이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레니에스의 자식이며 따지고보면 형제자매다, 하는 급의 적당한 발언이었다. 카르딜은 담담한 밀라의 분위기가 내심 편하게 느껴졌는지 옆에서 시키지도 않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알아서 풀어나갔다. 아이는 본디 시골 마을 태생이라고 했다. 아델라이즈 후작의 조카이며 지나간 겨울에 처음 수도를 방문하였다. 바로 작년에 마법사라는 사실을 알아챈 탓에 마법사 집단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들이나 소문 등에 무지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밀라는 카르델을 위해 무언가 아이가 흥미를 가질 법한 것들을 말해주고 싶었으나 입담이 영 없어 잠시간 묵묵히 그 이야기를 들어만 주고 있었다. 별 거 아닌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었으나 전달력이 좋아 제법 듣는 재미가 있었다. 밀라는 턱을 괴고 멍한 시선으로 살랑거리는 이파리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으면 실리카가 그녀를 찾아오거나 연회가 끝나 사람의 눈을 피해 돌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가슴 속의 응어리를 해소하고자 숨을 들이쉬었다. 은은한 꽃향기가 온 몸을 가득 채우는 기분이었다. 붉은 꽃, 보라색 꽃, 이름 모를 이국적인 생김새의 꽃…

‘… …?’

마음을 편하게 하는 향기를 사이로 그녀는 눅진한 마력의 흔적을 감지했다. 향기마저 화려한 꽃들과는 온전히 섞일 수 없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부류의 마력. 밀라의 몸을 차지한 이후로 처음 느껴보는 흑마법의 흔적이었다. 그것도 어설픈 것이 아닌 제대로 된! 멍하니 허공만 응시하던 밀라의 자색눈에 반짝 빛나는 총기가 깃들었다.

“…잠시, 방금 무엇을 보셨다고 하셨나요?”

“파란 화관과 빨간 손수건이 정원수 뒤에서 밀회를ㅡ”

“그 전의 이야기요.”

정신을 차리자마자 밀라는 카르딜의 잡다한 이야기들 중에서 요상한 무언를 재빨리 눈치챘다. 제 목숨이라도 달린 듯 본능적인 행위였다.

“화려한 옷을 입은 쥐 닮은 아저씨가 보라색 팬던트를 들고 미친놈처럼 중얼거리는 걸 보았던 거요?”

가까운 거리에서 자신을 조롱하던 베렐의 마력이 어떠한 느낌과 형태를 하고 있었던가? 밀라는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일순간 느낀 흑마법의 흔적을 더듬었다. 아마도 ‘진짜 밀라’의 것일 기억과 감각이 어렴풋하게 머리 안에서 반짝거리다 사라졌다. 그러나 그 일말의 흔적만으로도 그녀는 알 수 있었다.

‘베렐이 흑마법을 시전하려 하고 있어.’

어리둥절하게 대답하며 눈을 굴리는 카르딜에게 더 이상 시선을 줄 시간은 없었다. 마음 속의 불안이 솟아올랐다. 동시에 이제는 죽어버린 일레인 또한 다시 그 모습을 드러냈다. 밀라는 벌떡 일어나 들고 있던 손수건을 작은 손가방에 구겨넣었다.

“꼬마 도련님, 혹여 연회장에서 큰 소란이 생긴다면 굳이 살펴보지 말고 도망가세요.”

“잠깐ㅡ…”

“에브릴 청사로부터 멀리 떨어지세요.”

음료로 엉망진창이 된 드레스와 끈끈하게 방해물처럼 들러붙는 머리카락을 대충 쓸어 넘겼다. 아까의 두려움은 이미 접어 숨겨둔 듯, 밀라는 주저하지 않고 도망쳐 나온 연회장으로 다시 달려 들어갔다. 누가 보면 체신머리 없다 욕할 터이나 마음이 급했다. 짧게 드문드문 느껴지던 눅진한 검보라빛의 마력이 이제는 제법 선명하게 그 정체를 과시하고 있었다. 뒤로 무어라 소리치는 카르딜의 목소리가 들렸으나 명확한 의미를 알아듣지는 못하였다. 그녀가 휴게실을 건너 다시 연회장으로 막 들어섰을 무렵.

“아.”

바닥에서 벌레처럼 꿈틀꿈틀 경련하는 베렐을 지르밟으며 최상급 마수가 연회장 가운데 모습을 드러냈다. 짓밟힌 베렐의 육신은 끔찍한 소리를 내며 맨 정신으로는 보기도 어려운 형태로 으스러졌다. 그러건 말건, 마수가 튀어나온 검은 안개의 구멍은 바닥에 떨어진 보라빛 팬던트와 함께 연기처럼 흩어지기 시작했다. 상상조차 하지 못하였을 상식 밖의 상황에 연회장 모두가 찰나 얼음처럼 굳어 있을 때. 최상급 마수는 쇳소리를 내며 황녀 바로 앞에서 그 흉측하고 긴 혀를 내밀어 독액을 뚝뚝 흘렸다. 연회장에 있던 이들보다 한 발 앞서 나아간 밀라는 마법으로 형성한 빛나는 채찍을 손으로 꾹 쥐었다. 그녀는 가볍고 기사다운 발걸음으로 순식간에 황녀 앞을 가로막았다. 제 원수의 자식을 지키기라도 할 듯이!

\* \* \*

카르딜 아델라이즈는 드물게 당황스러운 얼굴을 하며 에브릴 연회장 방면을 흐린 눈으로 한참동안 주시했다. 그와 화기애애하게 이야기 하고 있던 밀이 갑작스레 뛰쳐나간 곳이었다. 도망가라는 밀의 말이 다시 한 번 귀에 울렸으나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흔들며 중얼거렸다.

“와… 진짜 이상한 사람 다 보네.”

아이는 폴짝 일어서며 엉덩이에 붙은 풀조각과 흙을 대충 털어내었다. 고급스러운 연갈색 옷감에 보기 흉한 풀물이 들어있었다. 그제서야 카르딜은 자신의 손수건을 돌려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았다. 특별히 아끼던 물건은 아니기에 아쉽지는 않았다. 그는 장미 덩굴 위에 잘 펴서 널린 밀의 손수건을 대신 집어들었다. 음료 색으로 얼룩덜룩했으나 손수건 구석에 수놓아진 이름을 못 알아볼 정도는 아니었다.

“밀라… 밀라 레첸스.”

카르딜은 뒷통수를 얻어 맞은 표정으로 밀의 본명인 밀라 레첸스를 몇 번이고 입에 담았다. 기가 막히는 일이었다. 원수도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오늘 무도회에서 만난 가장 마음에 든 사람이 제가 찾던 누나의 원수였다니? 어디 누군가에게 음료 세례라도 받고 온 몰골을 내심 가엾다고 여겼던 얼마 전의 자신을 마구 꼬집어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카르딜은 밀라의 손수건을 구겨 대충 주머니에 쑤셔넣었다. 그 때였다. 연회장 방면에서 기분 제법 선명한 비명소리가 들렸다. 생선을 손질하지 않고 오래 묵혀 둔 듯한 비린 악취가 뒤뜰의 정원까지 흘러 들어왔다. 마력에 예민하지 않은 그조차 알 수 있을 정도였다.

“마수가… 에브릴 청사에?”

어째서 밀라 레첸스의 얼굴이 잠깐 떠올랐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가 알던 과거의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이었을까? 밀라가 그의 학생들, 즉 카르딜의 누나를 내팽겨쳐 흑마법의 마수 사건에 휘말리게 했을 때도, 지금처럼 생각치도 못한 곳에서 ‘갑자기 마수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한다.

“밀라 레첸스, 설마 이번에도 그 양심 없는 흑마법사가 마수를 불러온 건 아니겠지…? 수도에?”

잠시간 품었던 호의는 어디 가고, 카르딜은 꼴에 기세 흉흉하게 주먹을 쥐었다 펴며 재빠르게 연회장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청사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도망가라는 ‘가엾은 밀’의 말이 생각났으나 이내 고개를 흔들어 그 목소리를 지워버렸다. 밀라 레첸스가 또다시 마수를 소환한 것이라면 응당 뛰어가 막아야만 했다. 그의 누나, 소문 속의 ‘아델라이즈 후작 영애’ 같은 불행한 이가 다시 생겨나지 않도록.